

【논 문】

## 훈춘, 청과 조선의 변경\*

김 선 민\*\*

### 차 례

1. 머리말
2. 野人 藩胡
3. 와르카
4. 변경 무역
5. 맺음말

### 국문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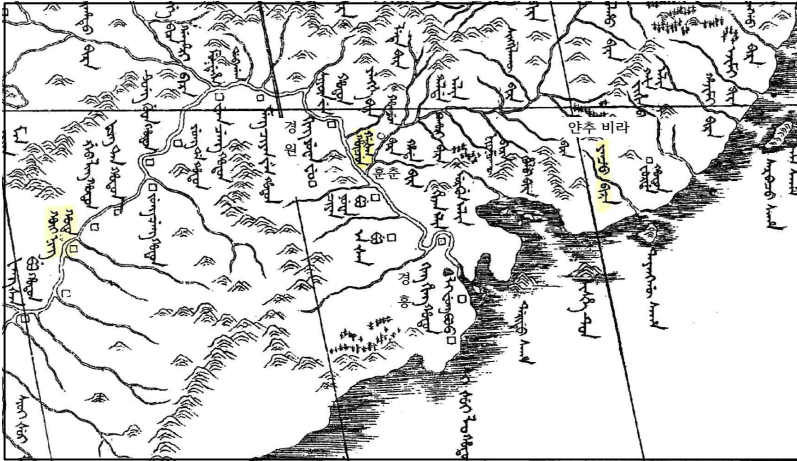
오늘날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훈춘 일대에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여러 부족민이 거주하면서 만주지역·중원·한반도의 주변 세력과 접촉하고 교류해왔다. 명대와 조선 전기에 이곳에 주로 거주했던 여진인들은 단일하고 통일적인 집단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세력이 분산된 채 거주지를 계속 옮겨가며 살았다. 명말에 이르러 건주여진이 흥기하여 여진부족을 통합하고 인근의 다른 부족민들을 복속시킬 때까지, 동해 연안에서 흑룡강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의 거주민들은 명·조선·몽골 그리고 북방의 다양한 부족들과 정치적·문화적·사회적으로 교류하면서 계속 변화해갔다. 훈춘을 둘러싸고 전개된 여진·만주인의 역사, 나아가 청과 조선의 역사는 변경이란 근본적으로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며 따라서 변경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의 관계가 달라지면 변경의 의미도 함께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중원과 한반도의 정치세력에게 변경이 지닌 정치적·역사적 의미는 시대에 따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3).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교수

라 계속 변화했던 것이다. 본고는 훈춘의 지리적 특징, 거주민의 변화, 그리고 주변 세력과의 관계를 통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만주와 한반도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는 새로운 한중관계사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국문 주제어 : 훈춘, 변경사, 藩胡, 와르카, 互市



[그림 1] 18세기 훈춘 : 강희 『皇興展覽圖』(1718) 第3排1號의 일부

## 1. 머리말

중국의 길림성에 위치한 훈춘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경원과 마주보고 있는 국경도시이다. 동남으로 러시아, 서남으로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훈춘은 서쪽 바깥에는 두만강이 돌아 흐르고 안에는 紅溪河가 관통한다. 이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평원으로 주변에 하천이 발달하여 목재·어류·조류·인삼·천연진주 등 다양한 자연자원이 풍부하다.

오늘날 훈춘이 위치한 두만강 동쪽 일대는 과거 조선과 청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龍飛御天歌』에는 산춘[實眼春]이라는 지명이 보이는데

이곳은 “慶源府에서 북으로 이틀거리이며, 동으로 系關城까지 하루거리이고 남으로 두만강까지 이틀거리”에 있었다.<sup>1)</sup> 『조선왕조실록』에는 薰春·會春·也春·訓春·厚春·琿春 등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한다.<sup>2)</sup> 각각의 지명에 대한 설명은 시기마다 조금씩 달랐다. 정종 연간(1398-1400)에는 야춘의 위치를 “경원 건너편”으로 설명했다.<sup>3)</sup> 인조 연간(1623-1649)에 이르러는 “경원과 경흥 사이”, “경흥부의 北岸에 있으며 경흥과의 거리가 겨우 1백여 리에 불과하다”고 여겼다.<sup>4)</sup> 1646년경에 이르면 “也春은 경흥 건너편, 厚春江은 경원 건너편”에 있으며 “厚春은 토지가 기름져 생활이 매우 넉넉하다”고 여겼다.<sup>5)</sup> 18세기 말 조선의 기록은 “琿春 부락은 경원 강북 십여리에 있으며 속칭 後春이라 한다”고 설명했다.<sup>6)</sup>

테라우치 이타로(寺內威太郎)에 따르면 也春은 조선이 오늘날 포시에트 만(Possiet Bay) 일대를 가리킬 때 사용한 지명이었다. 그는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산춘(實眼春)은 『大明實錄』의 顏春과 같은 곳으로, 포시에트 만 혹은 巖杵河(延楚河, 彥楚河, yancu bira) 일대라고 설명한다. 한편 훈춘은 야춘과는 다른 곳으로, 순치년간 초기에 청이 야춘의 둔전민들을 훈춘강 일대로 이주시키면서 새로이 설립한 곳이었다.<sup>7)</sup> 결국 조선은 두만강 동쪽 일대를 야춘·후춘 등 여러 이름으로 凡稱하다가 17세기 중반 청과의 교섭이 빈번해지고 이 지역에 대한 지리정보가 축적되면서 지명을 세분화하여 “也春은 남쪽의 경흥 건너편, 후춘은 북쪽의 경원 건너편”에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龍飛御天歌』, 1973, 『原本韓國古典叢書』 제2권, 大提閣, 권7, 22b.

2) 薰春·會春은 세종대 이후 사라지고 也春은 인조대까지 보이며, 세종-성종 연간에는 訓春이 널리 사용되다가 후금-청과의 접촉이 정례화되는 인조-숙종 연간에는 厚春으로 통칭되었다. 琿春은 고종 연간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3) 『조선정종실록』 권250, 15b (정종22/2/갑자).

4) 『조선인조실록』 권40, 10a (인조18/2/병진) : 『조선인조실록』 권40, 11a (인조18/2/계해).

5) 『조선인조실록』 권47, 57a (인조24/8/임인).

6) 洪良浩, 2004, 『北塞記略』, 『江外記聞』, 고구려연구재단 편, 『조선시대 북방사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176쪽.

7) 寺內威太郎, 1985, 『慶源開市と琿春』 『東方學』 70, 1~3, 9~10쪽.

훈춘의 위치는 청 황실에서 제작한 지도에서 잘 나타난다. 1718년(강희57) 만주어로 제작된 강희 『皇輿全覽圖』에는 “경원부(ging yuwan fu)”의 두만강 건너편과 “훈춘 비라(hūncun bira, 훈춘강)” 사이에 “훈춘 가산(hūncun gašan)”이 표기되어 있다. 1761년(건륭 26) 한자로 제작된 『乾隆十三排圖』에는 渾春嘴珊과 渾春站이 보이는데, 渾春嘴珊은 훈춘강의 서쪽에 있고 渾春站은 훈춘강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 만문본 강희 『皇輿全覽圖』의 위치와 다소 차이가 있다. 『清實錄』의 기록에서 훈춘은 대체로 寧古塔·伯都訥·阿勒楚喀·三姓 등 청대 동북지역의 주요 도시들과 함께 거론되었다. 즉 훈춘은 청대 동북지역 동남단의 대표 도시이자 그 일대를 포괄하는 행정영역을 가리키기도 했다. 이곳은 강희년간에는 渾春으로 불렸고 건륭년간에는 渾春과 琿春이 병칭되다가 가경년간에 이르러 琿春으로 불리게 되었다.

훈춘 일대에는 그 지명만큼이나 다양한 여러 부족민이 거주하면서 만주 지역·중원·한반도의 주변 세력과 접촉하고 교류했다. 명대와 조선 전기에 이곳에 주로 거주했던 여진인들은 단일하고 통일적인 집단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세력이 분산된 채 거주지를 계속 옮겨가며 살았다. 명 말에 이르러 건주여진이 흥기하여 여진부족을 통합하고 인근의 다른 부족민들을 복속시킬 때까지, 동해 연안에서 흑룡강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의 거주민들은 명·조선·몽골 그리고 북방의 다양한 부족들과 정치적·문화적·사회적으로 교류하면서 계속 변화해갔다. 훈춘 일대를 근거로 주변 세력과 교류했던 여진-만주인의 역사는 변경에서 나타나는 유동성과 가변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훈춘의 역사, 그리고 이곳을 거쳐 간 사람들의 역사는 단선적·영토 중심적·일국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접촉과 교류에 주목하는 변경사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sup>8)</sup> 본고는 훈춘의 지리적 특징, 거주민의 변화, 그리고 주변 세력과의 관계를 통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진행할 구체적인 사료 분석을 위한 배경을 제시하고자

8) 변경사적 관점에 대한 설명은 김선민, 2013, 「한중관계사에서 변경사로: 여진-만주족과 조선의 관계」 『만주연구』 15.

한다. 무엇보다 청과 조선의 변경에 위치한 훈춘에 주목함으로써 만주와 한반도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는 새로운 한중관계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野人 藩胡

조선 전기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는 우랑하(兀良哈),<sup>9)</sup> 오도리(斡朵里, 吾都里), 우디거(兀狄哈)<sup>10)</sup> 등 다양한 여진 부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김구진에 따르면 명과 조선은 만주에 거주하는 여진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분류했다. 명은 지역적인 행정 구분에 따라 건주여진·해서여진·야인여진으로 구분한 반면, 조선은 여진족 자신들의 분류에 따라 여진(토착여진)·우랑하·오도리·우디거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우랑하와 오도리는 생활양식에 따라 우디거와 구분되는데, 어원적으로 우랑하는 “강가(ula)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반면 우디거는 “숲(wedi)에 사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러한 설명을 종합하면, 우랑하와 오도리는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 농경생활을 하던 건주여진에 해당하고, 송화강과 무단강(후르하강) 상류에서 半牧半農 생활을 한 우디거는 해서여진에 해당한다. 한편 만주 동북쪽의 산악지대에서 수렵활동을 하는 우디거는 야인여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우랑하와 오도리의 원래 거주지는 송화강과 무단강이 합류하는 곳이었

9) 우랑하(兀良哈)은 『明史』에서는 蒙古 兀良哈三衛를 가리키는 반면,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오도리를 제외한 建州女眞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김구진은 건주여진의 우랑하를 “오랑캐”라고 부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한자어 음역의 통일성을 위해 사료에서 “兀良哈”으로 기록된 것은 모두 “우랑하”로 표기한다.

10) 우디거는 만주의 삼림지대에서 수렵생활을 하거나 초원지대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金史』는 兀의改·烏底改, 『元史』는 吾者, 『明史』는 兀者라고 썼다. 兀者는 ‘숲’을 의미하는 여진어(만주어)인 ‘우디(udi)’ 혹은 원지(weji:窩集, 濕集)를 음역한 것이다. 김구진, 2004, 「조선 전기 여진족의 2대 종족: 오랑캐(兀良哈)와 우디캐(兀狄哈)」 『白山學報』 68, 321~324쪽.

11) 김구진, 2004, 앞의 논문, 293~295쪽.

다. 이 지역은 청대에 이르러 ‘세 씨족을 의미하는 만주어 ‘일란 할라’(ilan hala. 三姓)로 불렸고 이를 한자로 음역하여 依蘭哈喇로 썼으며, 오늘날에는 이를 축약한 依蘭으로 불리고 있다. 元은 이 지역에 오도리[斡朵里], 후르하[胡里改], 타온[桃溫], 탈알련(脫斡憐), 패고강(李苦江)의 다섯 萬戶部를 설치했는데 원 말기에 이르러 이 가운데 오도리, 후르하, 타온의 세 萬戶만 남게 되었다. 조선의 『龍飛御天歌』에서 기록한 ‘移蘭豆漫 이란투만’은 바로 세 만호를 뜻하는 여진어 ‘ilan tumen’의 한자와 한글 음역이다. 이들은 도시나 성곽에서 거주하지 않고 물과 풀을 따라 이주하며 수렵했으며 소부족 단위로 광범위하게 이동하였다. 원말 만주지역의 상황이 혼란해지자 이들 가운데 일부는 무단강을 따라 남하하여 綏芬河·嘎呀河·부르하투 강·해란하·두만강 일대로 들어왔다.<sup>12)</sup>

무단강 유역에서 남하한 여진 부족 가운데 후르하는 서쪽으로 이주했다. 후르하의 수장 아하추(阿哈出, ?-1411)는 무리를 이끌고 綏芬河 상류의 鳳州로 이주했는데, 1403년(永樂 1)에 이르러 명의 建州衛指揮使에 임명되었고 아들 時家奴(釋迦奴)와 함께 명에 入朝했다.<sup>13)</sup> 1424년에 이르러 아하추의 손자 이만주(李滿住, 1407?-1467)는 다시 남하하여 압록강의 지류인 婆猪江(修佳江) 일대에 정착했다. 조선은 가까이 이주해온 후르하를 점차 우랑하라고 불렀다. 즉 『조선왕조실록』에서 후르하(火兒阿)의 명칭은 점차 사라지고 오도리 외의 여러 여진은 모두 우랑하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김구진에 따르면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아마도 후르하가 조선 인근으로 남하한 후 이전부터 그곳에 거주해온 우랑하와 합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연히 우랑하로 불린 것으로 추측된다.<sup>14)</sup>

서쪽에 정착한 후르하와 달리 오도리는 동쪽으로 이주하여 두만강 상류

12) 김구진, 1973, 「吾音會의 斡朵里女眞에 對한 研究」, 『史叢』 17·18합집, 92~93쪽.

13) 『明太宗實錄』 권25, 6b (永樂1/11/辛丑).

14) 한편 원말명초의 후르하는 명말청초 사료에서 와르카(瓦爾喀)로 불린다는 점에서 후르하·우랑하·와르카는 어원이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김구진, 2004, 앞의 논문, 309~310쪽.

의 퍄흠會(오늘날 함경북도 회령) 지역에 정착했는데, 이들은 남하 후에도 여전히 오도리로 불렸다.<sup>15)</sup> 오도리의 수장은 청태조 누르하치의 6대조로 알려진 몽케테무르(1370?-1433)였다. 몽케테무르의 오도리 부가 오음회로 이주한 시기는 1385년경으로 추정된다.<sup>16)</sup> 1395년(태조4) 그는 조선의 “靉都里上萬戶童猛哥帖木兒”로 조선에 入朝하여 토산물을 바쳤으며 1399년(정종1)에는 “靉音會靉都里萬戶童猛哥帖木兒”로 칭해졌다.<sup>17)</sup> 몽케테무르는 이후 영락제의 회유에 따라 1405년 명에 입조했고 建州左衛都指揮使에 임명되었다.<sup>18)</sup> 1440년에 이르러 몽케테무르의 동생 판차(fanca. 凡察)와 몽케테무르의 둘째아들 충산(cungšan. 童善)은 오도리의 일부를 데리고 혼하 상류의 소자하 쪽으로 이주하여 건주분위의 이만주와 합류했다. “국경 부근에 거주하는 오도리·우량하는 파저강 야인들과 혼인하거나 친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기록에 보듯 압록강 인근의 우량하와 두만강 일대의 오도리는 서로 밀접하게 교류했다.<sup>19)</sup> 1433년 충산이 조선조정을 방문하여 “薰春에 있는 부친(몽케테무르)의 백성들을 오모호이로 이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에서 보듯 오도리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훈춘과 회령 일대에 분산하여 거주하고 있었다.<sup>20)</sup>

15) 오음회는 조선의 기록에서 斡木河·阿木河로 표기되며, 훗날 청대 기록에서는 만주어로 오모호이(omohoi), 한자로 斡莫輝, 俄漠惠, 鄂漠輝로 음역되었다. 김구진, 1973, 앞의 논문, 93~94쪽.

16) 1405년(태종5) 몽케테무르가 “우리가 조선을 섬긴지 20여년”이라고 말한 사실로 미루어 오도리의 이주는 고려 말 1385년(고려 禔王 11년) 경으로 추정된다. 『조선태종실록』 권9, 16a (태종5/4/乙酉).

17) 『조선태종실록』 권8, 7b (태조4/윤9/기사) : 『조선정종실록』 권1, 4b (정종1/1/庚寅). 반면 건륭44년(1779) 청제국의 진성기에 완성된 『滿洲實錄(Manju i yargiyan kooli)』에서 몽케테무르는 먼터무(Mentemu, 孟特穆)로 소개되어 있으며 그의 거주지는 “그의 선조가 살았던 오모호이 들판의 오도리 성에서 해 지는 방향으로 1500리의 앞에 숙수후 강, 흘란 하다, 허투 알라”로 설명되어 있다. 『만주실록 역주』, 2014, 소명출판, 25~26쪽.

18) 建州左衛는 건주분위·건주좌위보다 훨씬 후에 설치되었다. 몽케테무르의 동생 판차(fanca. 凡察)가 건주좌위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조카 충산과 갈등하자 1442년(정통7) 명은 건주우위를 새로 설치하여 충산을 건주우위에 임명했다. 河內良弘, 1992, 『明代女眞史의 研究』, 京都: 同朋舎出版, 101~103쪽.

19) “近境住居斡朶里兀良哈, 或昏媾, 或交親於婆猪江野人者多矣.” 『조선세종실록』 권79, 9b (세종 19/11/기축)

20) 『조선세종실록』 권82, 13b (세종20/8/계축).

두만강 일대에는 건주좌위·건주우위의 오도리 외에도 모린[毛憐] 우량하가 살고 있었다. 모린(morin)은 여진어로 “말(馬)”을 뜻한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모린 우량하의 거주지는 豆門(土門, 慶源 대안)·愁州(鍾城)·童巾(潼關鎮)·伐時溫(鍾城 대안)·時應巾(時建, 穩城의 서쪽)·加下羅(鍾城 대안)·靑浦(靑靑浦, 鍾城 대안)·東良北(茂山 대안)·阿之郎貴(해란하와 부르하투하의 합류지) 등으로, 두만강 일대 전역에 광범위하게 산재했다. 모린 우량하는 계통이 매우 잡다하여 伐時溫의 추장 劉把兒遜은 우디거에 가깝고, 靑浦의 阿亂은 오도리에 가까우며 時應巾의 高里寶里와 東良北의 他時는 후르하에 가까웠다.<sup>21)</sup>

우량하·오도리와 비교하여 우디거는 만주의 동북쪽 산악 지대에 거주했기 때문에 명보다는 조선과의 접촉이 더 많았다. 이 가운데 골간(骨看, 關兒看) 우디거는 “물(水) 우디거” 혹은 “水野人”라고도 불렸다. 『龍飛御天歌』에 따르면 “골간 우디거[關兒看兀狄哈] 추장은 산춘[實眼春] 골아투칭개[括兒牙禿成改]이며 골간 우디거는 물가에 살면서 어업을 생업으로 삼는다.”<sup>22)</sup> 이들은 경흥·江陽·仇信浦 등 두만강 하류, 訓春·會春 등 훈춘하 하류, 두만강에서 포시에트 만 및 綏芬河 일대에 걸쳐 거주했다. 골간 우디거는 沿海에 거주했기 때문에 배를 사용하여 주로 어업·수렵에 종사했고, 일부는 농사에 종사하기도 했는데 흉년이 들면 조선에서 식량을 구하기도 하고 조선에서 토지를 얻기도 했다. 15세기 중후반 초피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들은 말을 기르기도 했다.<sup>23)</sup> 한편 嫌眞 우디거는 “七姓 우디거”라고도 불렸는데 무단강 중류 영고탑 지역에 주로 거주했다.

조선은 개국 직후부터 두만강 일대의 모린 우량하, 오음회의 오도리, 두만강 하류 동해안 일대의 골간 우디거 등 세 부족을 회유하기 위해 많은 노

21) 김구진, 1974, 「初期 毛憐 兀狄哈 研究」 『白山學報』 17, 164~180쪽.

22) 『용비어천가』 권7, 22b.

23) 劉小萌 지음, 이훈·김선민·이선에 옮김, 2013, 『여진부락에서 만주국가로』, 푸른역사, 109쪽; 河内良弘, 1992, 「骨看兀狄哈管見」 『神田信夫先生古稀記念論集：清朝と東アジア』, 東京：山川出版社, 130~139쪽. 뒤에서 설명하듯이 명대의 골간 우디거는 청대의 쿠르카·쿠야라의 선조였다.

력을 기울였다. 조선은 세 부족의 수장인 모린 우랑하의 劉把兒孫·오도리의 몽케테무르·골간 우디거의 골야 투칭개(括兒牙禿成改, 金豆稱改)를 회유하기 위해 식량·포목·의복 등 생필품을 하사하고 경원에 개시를 열어 교역의 기회를 제공했다.<sup>24)</sup> 1393년(태조2) 조선은 參散(北靑) 출신의 여진 千戶이자 조선의 개국공신인 李之蘭, 즉 고론 투란테무르(Koron turantemur, 古論豆蘭帖木兒)을 東北面都按撫使로 임명하여 甲州와 孔州에 성을 쌓고 일대의 여진을 다스리게 했다. 이어 1398년(태조7)에는 정도전을 東北面都宣撫巡察使로 파견하여 이 지역의 군사·행정체제와 관할구역을 정비하게 했다. 이때 공주의 성을 개축하여 慶源都護府로 승격하고 종성군을 설치하여 萬戶를 두었으며 두만강에 兵船을 정박하게 하는 등 동북면을 장악하기 위한 일련의 군사조치를 실시했다.<sup>25)</sup>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만강 일대의 여진 부족을 조선의 영향력 하에 복속시키는 일은 순조롭지 않았다. 복원 세력을 축출한 명의 영락제가 만주 일대의 여러 부족을 복속시키기 위해 접근해오자, 조선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두만강 일대의 여진 부족은 크게 동요했다. 1403년(영락1, 태종5) 영락제는 가장 먼저 후르하의 아하추를 명에 入朝시키고 건주위를 설립함으로써 중원에 가까운 남만주 일대의 여진부터 복속시키기 시작했다. 이어 영락제는 두만강 유역으로 손을 뻗어 오도리의 몽케테무르를 여러 차례 招撫했다. 조선은 두만강 일대에 명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1405년(영락3, 태종5) 9월 몽케테무르 역시 명에 入朝하고 建州左衛都指揮使에 임명되었다.<sup>26)</sup> 같은 해 12월 명은 모린 우랑하를 초무

24) 당시 조선과 여진의 교섭과 관련하여 이인영은 여진에게 조선과의 무역이 매우 중요했으며 따라서 양측의 관계는 주로 경제적인 것이었다고 강조한다. 이인영, 1954, 『韓國滿洲關係史의 研究』, 을유문화사, 30~56쪽.

25) 方東仁, 1997, 『韓國의 國境劃定研究』, 일조각, 219~221쪽.

26) 몽케테무르가 명에 入朝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조선은 여진과의 교역을 중단했다. 이에 물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여진은 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는 다시 조선의 북쪽 공격을 불러왔다. 1411년 몽케테무르는 혼란을 피해 오도리 부의 일부를 이끌고 鳳州로 이주했다가 1423년 다시 오모호이로 돌아왔다. 이후 몽케테무르는 조선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나 1433년 혼거하던 인근의 협진 우디거에게 피살되었

하는 데도 성공했다. “毛憐 등처 野人頭目 把兒遜 등 64인이 來朝”하였고 명은 毛憐衛를 설치하여 把兒遜 등을 指揮·千戶·百戶 등에 임명했다.<sup>27)</sup> 영락 4년(1406) 골간 우디거의 수장 골야 투칭개(金禿成改)가 입조하자 명은 이듬해 喜樂溫衛를 설치하고 그를 指揮에 임명했다.<sup>28)</sup>

오도리와 모린 우랑하는 두만강 일대에 거주하면서 생존권과 교역권을 보장받는 것이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명에 입조한 후에도 조선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조선은 이들의 배반에 대한 응징으로 하사품 지급을 중단하고 경원의 개시도 철폐했다. 생필품의 공급원인 조선과의 교역이 차단되자 생존의 위협을 느낀 오도리와 모린 우랑하 뿐만 아니라 인근의 험진 우디거·深處 여진 등은 조선 변경을 침입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물품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1410년(태종10)에는 험진우디거·모린 우랑하·오도리가 결탁하여 경원을 침입하여 조선의 兵馬使가 戰死하기에 이르자, 조선은 두만강 연안의 모린 여진의 거주지를 습격하여 毛憐衛 指揮使 阿古車·毛憐衛 지휘첨사 劉把兒孫·毛憐衛 우랑하 萬戶 着和·毛憐衛 우랑하 千戶 下乙主 등 추장들을 참살했다.<sup>29)</sup>

조선의 모린위 정벌 후에도 우랑하와 오도리의 조선 침입은 계속되었다. 두만강 일대에서 여진의 습격이 계속되자 세종은 방어를 후퇴시키자는 일부의 제안을 뿌리치고 반대로 여진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1434년(세종16) 김종서는 咸吉道에 파견되어 두만강 일대의 방비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고, 그 결과 1449년(세종25)까지 조선은 경원·회령·종성·온성·경흥·부녕에 6진을 설치하여 동북을 경영했다.<sup>30)</sup> 6진의 설치와 병행하여 실

다. 몽케테무르의 입조를 둘러싼 명과 조선의 관계는 박원호, 2002,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169~179쪽 참조.

27) 『明太宗實錄』 권49, 2a-b (永樂3/12/甲戌); 『조선태종실록』 권11, 10a (태종6/3/병신).

28) 『明太宗實錄』 권63, 2a (永樂5/1/戊辰). 喜樂溫은 眼春 부근의 작은 강의 이름이다.

29) 김구진, 1974, 앞의 논문, 205~210쪽.

30) 方東仁, 1997, 앞의 책, 216~227쪽. 압록강 상류 지역에 대해서는 1416년(태종16)부터 1443(세종25)까지 27년에 걸쳐 閔延·慈城·茂昌·虞芮에 4군을 설치하여 방비체제를 갖 추었다. 4군 설치 역시 세종 연간 여진에 대한 두 차례 정벌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두만강 일대의 6진과 달리 압록강 일대의 4군은 지리적으로 賊地에 가

시한 함길도 徙民 역시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두만강 일대의 5진은 “튼튼하고 풍성하며 군사와 말들이 날래고 강력하니,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기에는 부족해도 성을 견고하게 하여 지킨다면 大賊이 와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여겨졌다.<sup>31)</sup>

세조 연간 조선은 1410년 정벌에서 살아남은 모린 우랑하의 추장 浪孛兒罕(郎卜兒罕)을 후대하고 그가 명으로부터 모린위 도지휘사의 관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선의 관직을 내려 正憲大夫 知中樞院事에 임명하는 등 두만강 일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낭패이한이 회유에 협조하지 않자 1459년(세조5) 조선은 그를 참수하고,<sup>32)</sup> 이듬해 신숙주를 함길도에 파견하여 두만강 인근에 거주하는 여진인 430명을 사살하고 가옥과 재산을 불태웠다.<sup>33)</sup> 그러나 신숙주의 정벌 직후부터 중성이 공격을 당하는 등 여진의 조선 침입은 경원·온성·吉州·甲山에서 계속되었다. 한편 두만강 일대의 골간 우디거는 험진 우디거의 압박에 밀려 성종 14년(1483) 압록강 중류로 이주했고, 중종 연간(1506-1544)에 이르러 閔延과 茂昌 사이에 널리 거주하게 되었다.<sup>34)</sup>

김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에서 태조부터 성종까지는 우랑

---

카이 들어가 있고 토지가 척박하여 백성이 거주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1450년부터 이미 철폐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1459년(세조5)에 마침내 철폐되었다. 같은 책, 199~216쪽. 한편 이인영은 세조 연간에 이르러 조선이 압록강 인근의 4군을 폐지하게 된 것은 서몽골 오이라트의 에센이 만주 방면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에센이 우랑하 삼위와 헤서여진을 위협하면서 요동의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건주여진이 동요하게 되자, 이들의 남하를 우려한 조선조정이 평안도의 방어 전략을 재조정하면서 4군이 철폐되었던 것이다. 이인영, 1954, 앞의 책, 68~69쪽.

31) “今五嶺阜盛，士馬精強，以此行兵攻伐，則不足矣，堅壁自守，則雖有大賊，不足慮也。” 『조선세조실록』 권116, 9b (세종29/윤4/신사).

32) 『조선세조실록』 권17, 27b (세조5/계묘). 조선이 浪孛兒罕을 참수한 일이 전해지자 명은 사신을 파견하여 ‘명의 관직을 가진 자를 명에 알리지 않고 조선이 마음대로 주살한’ 배경을 추궁했다. 명은 조선의 왕이 법에 따라 죄를 주는 것은 오직 왕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鄰境에서는 할 수 없으며, 명에 주문하지 않고 죄를 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浪孛兒罕을 둘러싼 조선과 명의 외교 갈등에 대해서는 한성주, 2011,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143~152쪽.

33) 『조선세조실록』 권21, 24b (세조6/9/갑신)

34) 河內良弘, 1992, 앞의 논문, 142-143쪽.

하와 우디거의 구분이 명확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불분명해진다.<sup>35)</sup> 대신 조선에서는 두만강 일대의 여진을 점차 藩籬·藩屏·藩胡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여진을 번리로 여기는 인식은 실제로 세종년간 두만강 일대에 6진을 설치할 때부터 이미 등장하고 있었다.<sup>36)</sup> 여기에서 말하는 번리는 “조선에 귀순하여 순종하고, 대대로 조선 경내에 살면서 먼 지역이나 深處의 우디거의 소식을 전하거나 事變을 탐지하여 보고하고, 보고 들은 것을 달려와 고하며, 심처의 우디거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서 賊變이 있으면 같은 마음으로 막아 온 여진”을 가리켰다.<sup>37)</sup> 번리·번호는 곧 두만강 일대의 여진을 울타리로 삼아 변경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조선의 동북 방어정책을 보여주는 용어였다.

문종 연간에 이르러 조선은 오도리뿐만 아니라 우랑하·우디거도 번리로 여기게 되었다. 1450년(문종1) 조선은 “우랑하는 그 수가 많고 東北北에서 夜春에 이르기까지 5진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번리가 되어 안심하고 생활해 왔다”고 여겼다.<sup>38)</sup> 1460년(세조6) 조선을 방문한 명의 사신 역시 “(조선의) 성 가까이에 사는 야인들[城底野人]은 곧 귀국의 藩籬이니 잘 다스려야 한다”는 뜻을 세조에게 전달했다.<sup>39)</sup> 16세기 초에 이르러 조선은 스스로 “城底野人들은 대대로 우리 땅에 살고 우리의 藩籬가 되어 국가에서 항상 불려서 무마하고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조정에 오면 입히고 먹었으며 爵秩을 주고 祿俸 또한 넉넉하게 주어서” 이들을 후한 은혜로 대우했다고 여겼다.<sup>40)</sup> 두만강 일대에 거주하는 여진을 곧 조선의 보호를 받는 자들로

35) 김구진, 2004, 앞의 논문, 304쪽.

36) 세종은 육진 설치와 관련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각컨대 오음회(幹木河)는 본래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 있다. 만약 판차 등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어떤 강적이 와서 오음회에 거주한다면, 우리나라의 영토를 잃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강적이 생기는 것이다. (중략) 祖宗께서 오음회를 경계로 삼은 마음을 일찌기 잊은 적이 없다. 내가 (鎮을) 옮기려는 것은 큰 공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祖宗이 藩籬를 세웠다면 자손된 자는 (그 뜻을) 따르고 보충할 뿐이다.” 『조선세종실록』 권6, 17a (세종15/11/戊戌).

37) 한성주, 2011, 앞의 책, 183쪽.

38) 『조선문종실록』 권4, 50b (문종1/11/무오).

39) 『조선세조실록』 권21, 15a (세조6/8/병진).

40) “城底野人居我土, 爲我藩籬, 故國家常加招撫, 飢則賑給之, 來朝則衣食之, 又加其爵秩, 豐其

간주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심처야인의 침입에 대비해서 여진 번리를 위해 목책과 토성을 설치하고, 심처의 우디거가 침입해오면 조선의 鎭將이 여진 번리를 보호하며, 이들 가운데 침략을 당하여 성을 넘어 들어오는 자가 있으면 쫓아내지 않고 성 안에서 보살피고, 또한 성저야인이 흉년을 당하면 編氓처럼 여기고 구제해야 한다고 여겼다. 여진 번리가 피해를 당하는데도 구원하지 않으면 조선의 위신이 손상되는 것이며 이들이 조선에 臣服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sup>41)</sup>

두만강 일대에 거주하는 여진이 조선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는 선조 연간까지 계속되었다. 1599년(선조32) 함경감사는 6진에 이르러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때 참석한 藩胡의 수가 7천 명에 달했다고 보고했다.<sup>42)</sup> 그러나 조선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6세기 말 두만강 일대 여진은 동요하고 있었다. 1583년(선조16) 『선조수정실록』의 史官은 당시의 여진 藩胡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도의 胡人 가운데 두만강 너머 邊堡 가까이 살며 무역을 하고 공물을 바치는 자들을 藩胡라고 하고, 백두산 북쪽의 여러 胡人 가운데 아직 親附하지 않은 자들을 深處胡라고 한다. 이들 또한 때때로 변방에 찾아와 공물을 바치기도 한다. 심처호가 변방에 들어오려고 하면 번호가 곧 보고하여 이들을 막거나 구원했다. 祖宗부터 藩胡를 후대한 것은 이때문이었다. 변방의 방어가 점차 소홀해지고 번호가 날로 강성해졌으나 이들을 마땅히 다스리지 못하여 오히려 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지금 번호가 앞장서 난을 일으키고 스스로 深處胡를 이끌고 침입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니 북쪽 변경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sup>43)</sup>

祿俸, 恩亦至矣. 近日奸細之徒, 潛結深處野人, 以我愚民爲奇貨, 或潛隱招引, 或指導虜去, 至於久遠來居向化者, 亦皆招納. 又於推遷之際, 互相庇覆, 其爲惡無忌, 如此其極.” 『조선연산군일기』 권46, 18a (연산군8/10/정사).

41) 한성주, 2011, 앞의 책, 190~191쪽.

42) 『조선선조실록』 권114, 27a (선조32/6/병오).

43) “北道胡人, 居江外接近邊堡, 交貨納貢者爲藩胡, 山北諸胡, 未嘗親附者, 謂之深處胡, 亦時時款邊. 深處胡欲入邊, 藩人輒告之, 或遮防調挾, 故自祖宗朝厚待藩胡者以此. 及邊防浸疎, 藩胡浸盛, 撫馭失宜, 反爲亂階. 至是, 藩胡首亂, 自是或引深處胡入寇, 反覆自利, 北邊始不安矣.” 『선

선조 연간 史官이 지적한대로 두만강 일대의 여진은 크게 동요하게 되었는데, 이는 임진왜란에 따른 조선의 북방 방어력 약화와 함께 16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주여진의 흥기와 관련되어 있었다. 누르하치가 이끄는 건주여진은 남만주의 여러 부족을 병합하고 이어 두만강 일대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1595년(선조28) 당시 누르하치의 도움 피알라(Fe Ala)를 방문한 申忠一은 건주여진의 수장들에게 두만강 일대의 여진과 조선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동북면은 여진족과 인접하여 단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심상히 왕래하며, 귀순한 사람이 종종 강도짓을 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변란을 일으키기도 한다.”<sup>44)</sup> 당시 모련위의 주장 老修은 이미 휘하를 거느리고 말과 초피를 예물로 바치고 누르하치에게 투항한 상태였다.<sup>45)</sup> 건주여진의 성장과 金國(aisin gurun)의 등장은 궁극적으로 조선 정벌과 청의 稱帝로 이어졌고, 두만강 일대의 여진은 조선의 영향에서 벗어나 청에 복속되어갔다.

### 3. 와르카

훈춘 일대의 거주민들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청에서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1779년(건륭44)에 완성된 『만주실록(Manju i yargiyan kooli)』은 누르하치가 아직 세력을 구축하기 이전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조수정실록 권17, 1b (선조16/2/갑신).

44) 신충일은 뒤이어 두만강 일대와 압록강 일대는 조선과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서북면은 여진족이 사는 곳과 수백 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해를 끼치는 일이 많지 않다. 너희도 두 귀가 있는데 어찌 익히 듣지 못했겠는가.” 이민환 지음·중세사료강독회 옮김, 2014, 『책중일록』, 서해문집, 178쪽.

45) 이민환, 2014, 앞의 책, 188쪽.

숙수후 강의 지역의 부(suksuhu birai goloï aïman) · 후너허 강의 지역의 부(hunehe birai goloï aïman) · 왕기야 지역의 부(wanggiyai goloï aïman) · 동고 지역의 부(donggoï goloï aïman) · 저천 지방의 부(jecen i bai aïman) · 백산 지역(sanggiyan alin goloï)의 너연(neyen) · 알루강의 부(yalu giyang ni aïman) · 동해 지역(dergi mederi goloï)의 위지(weji) · 와르카(warka) · 쿠르카 부(kürkai aïman).<sup>46)</sup>

18세기에 重繪된 『滿洲實錄』에서 오늘날 훈춘 일대에 거주한 사람들은 “위지(weji. 窩集) · 와르카(warka. 瓦爾喀) · 쿠르카(kürka. 庫爾喀)”로 구분되어 있다. 한편 『만주실록』과 비슷한 시기인 1777년(건륭46)에 작성된 『滿洲原流考』에 따르면 쿠르카는 쿠야라(庫雅拉)라고도 불렸으며 토문강 북쪽, 조선의 경원 건너편에 거주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1927년(民國16)에 완성된 民國 『琿春縣志』는 와르카는 명대의 명칭이고 쿠르카는 청초의 명칭이었으며, 와르카의 거주지는 훈춘 · 화룡 · 연길 · 왕청 및 러시아령 巖杵河 · 圖拉木 · 블라디보스톡의 동쪽이었다고 설명한다.<sup>47)</sup>

와르카 · 후르하 · 쿠르카 등 훈춘 일대에 거주했던 부족민의 명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분석한 바 있다. 아나미 코레히로(阿南惟敬)에 따르면 누르하치 시기에 와르카는 두만강 일대에서 북쪽으로 우수리강 상류의 흥개호 남안에 걸쳐 거주했고, 후르카는 무단강(후르카강) 하류의 일란할라(Ilan hala. 依蘭縣)부터 동북쪽으로 흑룡강 하류의 불론호수(博隆湖)에 걸쳐 거주하면서 닝구타 부근에서 와르카와 인접했다.<sup>48)</sup> 위지는 무단강 상류와 우수리강 상류, 북쪽으로 송화강 하류부터 우수리강 하류에 걸쳐 거주했다고

46) 『만주실록역주』, 2014, 35쪽.

47) 民國 『琿春縣志』(1927), 『長白叢書』 4集 (吉林: 吉林文史出版社, 1990), 43~45쪽. 이어 民國 『琿春史地』는 명대에 기미정책이 실시되면서 훈춘 일대에 다수의 衛所가 설치되었고 그 우두머리에게는 都督 · 都指揮 · 指揮 · 千百戶 · 鎮撫 등의 직책이 주어졌다고 설명한다. 『滿洲原流考』와 『吉林通志』의 기록을 바탕으로 民國 『琿春縣志』에서 정리한, “琿春 舊境”에 설치되었다고 여겨지는 위소는 다음과 같다. 率濱江衛 · 珠倫衛 · 穆霞河衛 · 賡金河衛 · 色珠倫河衛 · 烏爾渾山衛 · 額哲密河衛 · 通肯山衛 · 舒讎河衛 · 赫圖河衛 · 阿布達理衛 · 富色克摩衛 · 布爾哈圖衛 · 錫璘衛 · 瑚葉衛 · 吉朗吉衛 · 珠倫河衛 · 舒爾哈衛 · 穆當阿山衛 · 呼濟河衛 · 愛丹衛 · 薩拉衛 · 布達衛 · 富爾哈河衛 · 喀爾達衛 · 鄂爾琿山衛 · 額圖密地面 · 伊津河地面 · 布爾哈圖河地面 · 塞珠倫河地面 등이다. 民國 『琿春縣志』(1927), 1990, 39~43쪽.

48) 阿南惟敬, 「清初の東海虎爾哈部について」, 『防衛大學校紀要』 7 (1963), 40쪽.

여겨지지만,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sup>49)</sup> 홍타이지 시기에 이르면 와르카와 후르카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두 명칭이 혼용되기도 하고 때로 별개의 집단을 가리키기도 했다. 아나미는 누르하치 시기 두만강과 우수리강 상류의 와르카가 후금의 도성으로 이주하면서 이곳이 빈 땅이 되었고 이후 후르카가 옮겨오면서 명칭의 혼란이 발생했다고 추정한다.<sup>50)</sup> 한편 董萬倫에 따르면 두만강 북쪽의 와르카인은 누르하치 시기에 이미 서쪽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홍타이지 시기에 이 지역의 거주민은 실제로 후르하이며, 따라서 이들을 와르카로 기록한 것은 오류라고 주장한다.<sup>51)</sup>

와르카 외에 후르하와 쿠르카 역시 혼용되었다. 테라우치 이타로(寺內威太郎)는 『清太宗實錄』의 順治初纂本에서는 쿠르카와 후르하가 혼용되다가 乾隆重修本에서는 양자가 구별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쿠르카는 주로 동해 일대의 거주민을, 후르하는 무단강과 송화강 일대의 거주민을 가리키게 되었다고 설명한다.<sup>52)</sup> 마쓰우라 시게루(松浦茂)는 태종 연간의 기록에서 우수리강 유역의 주민을 와르카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쿠르카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실제로 우수리강 유역에 거주한 것은 쿠르카였다고 설명한다.<sup>53)</sup>

그렇다면 『만주실록』·『만문노당』에 등장하는 와르카와 후르카는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여러 여진 부락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동해의 와르카” 가운데 함경도와 두만강 일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바로 조선의 “藩胡”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조선에서 와르카를 “여섯 지역(ninggun golo) 즉 六鎮 지역에 거주하며 교역하는 사람들로 설명한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sup>54)</sup> 뿐만 아니라 조선의 함경도를 “와르카의 威鏡지역(warka i šan jing

49) 위지는 독립적인 부족이 아니라 실제로는 “쑤(weji)”에 거주하는 후르카와 와르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주장이 있는 반면, 『만주실록』의 분류대로 위지를 와르카 및 후르카와 구분되는 실체로 보는 견해도 있다.

50) 阿南惟敬, 1970, 「清の太宗のウスリ—江征討について」, 『防衛大學校紀要』 20, 145쪽.

51) 董萬倫, 2003, 「明末清初圖們江內外瓦爾喀研究」, 『民族研究』, 70~73쪽.

52) 寺內威太郎, 1985, 앞의 논문, 1~2쪽.

53) 松浦茂, 2006, 『清朝のアムル政策と少数民族』,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70쪽.

golo)"라고 부른 경우도 보인다.<sup>55)</sup>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카와치 요시히로(河內良弘)는 동해 지역의 와르카는 조선 동북 변경의 우랑하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sup>56)</sup> 반면 董萬倫은 치치하르 『타타라씨족보(他塔喇氏家譜)』를 근거로 청초기 문헌에 나타나는 와르카는 목단강·송화강이 아니라 동해 연안과 두만강 일대에 분포했으며 이들은 명 초기의 건주 오도리와 모린 우랑하의 후예였다고 설명한다.<sup>57)</sup> 이러한 설명을 종합하면 결국 조선에서 우랑하·오도리·우디거로 불리던 사람들, 즉 瀋胡의 후손들이 청초에 이르러 와르카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 말에 이르러 누르하치의 세력이 팽창하면서 훈춘 일대의 와르카인들은 점차 건주여진에게 복속되어갔다. 만력 26년(1598) 누르하치는 군사를 파견하여 당시 울라의 부잔타이의 세력 하에 있던 와르카 部(warkai aiman)의 안출라쿠(anculaku)와 내하 지역(dorgi birai golo), 즉 오늘날의 훈춘 일대를 장악했다. 이듬해 1599년에는 동해 위지부의 후르가(후르하) 지역(hūrgai golo)의 수장들이 초피가죽을 가지고 누르하치에게 고두해왔다.<sup>58)</sup> 1607년(만력35)에는 와르카 부의 피오 성(fio hoton)<sup>59)</sup>의 사람들이 부잔타이에게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자 누르하치는 군사를 파견하여 이곳의 와르카인들을 건주로 데려왔다. 1609년 동해 위지 부의 후여 지방(huye i golo), 이듬해 1610년 동해 위지 부의 남두루(namdulu)·수이푼(suifun)·닝구타(ningguta)·니마차(nimaca) 네 곳, 야란 지역(yaran i golo), 동해 위지 부의 우르구천(urgucen)과 무런(muren), 동

54) 『滿文老檔』, 1959, 4권, 太宗1, 東京: 東洋文庫, 126쪽 (천총2/3/8): 『清太宗實錄』 권4, 58下, 天聰2/3(己巳).

55) 河內良弘, 2010,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 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 崇德二·三年分』, 松香堂書店, 61쪽.

56) 한편 카와치에 따르면 쿠르카는 목단강 중류에서 송화강 입구에 걸쳐 거주했고 위지는 阿速江 衛에 거주했다. 특히 명말 위지 부 가운데 니마차(nimaca) 路에 거주하는 자들은 니마차 우디거[尼麻車兀狄哈]의 후예로, 이들이 곧 『八旗滿洲氏族通譜』에 수록된 청대 니마차 할라(nimaca hala. 尼麻車氏)라고 추정한다. 河內良弘, 1992, 앞의 책, 587~589쪽.

57) 董萬倫, 2003, 앞의 논문, 77쪽.

58) 『만주실록역주』, 2014, 123쪽.

59) 피오성은 『盛京吉林黑龍江等處標注戰蹟輿圖』(1776, 건륭 41)에 의하면 현재 훈춘하 입구의 高麗城이다. 董萬倫, 2003, 앞의 논문, 70쪽.

해 후르가 부(dergi mederi hūrga i aiman)의 자쿠다 지역(jakūta ba)을 복속시켰다. 1614년 동해 남쪽 위지 부의 야란(yaran)·시린(sirin) 두 지역을 공격하고 투항한 200戶와 노획 1천을 데려왔고 이듬해 1615년 동해 위지 부의 동쪽에 있는 어허 쿠런(che kuren)을 공격하여 투항민 500호를 데려왔다.

후금국을 건국한 후에도 와르카·위지·후르하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었다. 1618년 동해 지역 후르하 부에서 100戶가 찾아오자 노복·말·소·비단·토지 등을 하사하고 고향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모두 데려오도록 회유했으며 또한 병사를 보내 후르하의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오게 했다.<sup>60)</sup> 이듬해 1619년 동해의 후르하에서 투항한 1천 호와 2천 명의 성인남자를 취했다. 1625년 동해 와르카에서 330명의 남자를 데리고 왔으며 같은 해 다시 병사 1,500명을 보내 와르카인들을 데려왔다. 이때 이주시킨 수는 명확하지 않으나 “(노획을) 많이 얻어 데려온다”고 하여 누르차치가 직접 나아가 “100마리 짐승 고기와 200병 소주”로 병사와 데려온 와르카인들을 위해 잔치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수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sup>61)</sup> 같은 해 동해 남쪽 지방의 후르하 500호를 얻었으며, 동해 북쪽 구왈차 부(gūwalcai aiman)를 공격하여 2천명을, 동해 북쪽 후르하에서 1,500명을 데려왔다.<sup>62)</sup>

[표 1] 누르차치의 와르카후르하 공격

연도	지역	출전 (『만주실록역주』)
----	----	---------------

60) 『만주실록역주』, 2014, 233~235쪽 : 237쪽.

61) 『만주실록역주』, 2014, 410~411쪽.

62) 누르차치가 와르카를 복속시키고 니무로 편제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마스이 칸야(増井寛也), 1999, 「明末のワルカ部女直とその集團構造について」 『立命館文學』 562.

연도	지역	출전 (『만주실록역주』)
1607년(만력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해 위지 부허시허(hesihe)</li> <li>오모호 수루(omoho suru)</li> <li>퍼너허 톡소(fenehe)</li> </ul>	145쪽
1609년 (만력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해 위지 부</li> <li>후여 지방(huye i golo)</li> </ul>	151-152쪽
1610년(만력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해 위지 부</li> <li>남둘루(namdulu)</li> <li>수이푼(suifun)</li> <li>닝구타(ningguta)</li> <li>니마차(nimaca)</li> <li>야란 지역(yaran i golo)</li> <li>동해 위지 부</li> <li>우르구천(urgucen)</li> <li>무런(muren)</li> <li>동해 후르하 부(dergi mederi hūrga i aiman)</li> <li>자쿠다 지역(jakūta ba)</li> </ul>	153쪽 ; 155쪽 ; 156쪽
1614년(만력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해 남쪽 위지 부</li> <li>야란(yaran)</li> <li>시린(sirin)</li> </ul>	180-181쪽
1615년(만력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해 위지 부 동쪽</li> <li>어허 쿠런(ehe kuren)</li> </ul>	189쪽
1619년(천명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해 후르하</li> </ul>	275쪽
1625년(천명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해 와르카</li> <li>동해 남쪽 후르하</li> <li>동해 북쪽 구왈차 부(gūwalcai aiman)</li> <li>동해 북쪽 후르하</li> </ul>	410-411쪽 ; 416쪽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 홍타이지가 즉위한 후에도 후금의 와르카 정복은 계속되었다. 1629년(천총3) 홍타이지는 병사를 보내 와르카를 공격하게 하면서 이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투항하는 사람은 모두 民戶로 편제하여 데리고 올 것을 명했다.<sup>63)</sup> 특히 홍타이지는 누르하치 시기에 후금의 세력을 미치지 못한 우수리강 유역과 동해 인근의 와르카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sup>64)</sup>

63) 『清太宗實錄』 권5, 72下(天聰3/7/甲午).

황제에 즉위한 후 청 태종은 조선을 공격하면서 와르카 정벌도 동시에 진행했다. 1637년(승덕원년) 정월 코르친(korchin. 科爾沁)·자루트(jarut. 扎魯特)·아오한(aohan. 敖漢)·나이만(naiman. 奈曼) 등 몽고 병사를 파견하여 함경도에서 와르카 지방을 공격하게 했다.<sup>65)</sup> 1637년(승덕<sub>2</sub>)에는 병사 1,200명이 四路로 나누어 와르카를 공격하여 장정 780명을 획득했다.<sup>66)</sup> 같은 해 7월 조선을 공격하고 심양으로 돌아오면서 청군은 와르카 지방을 경유하여 회군했다.<sup>67)</sup> 여기에는 그동안 수년간 공략하여 정복한 와르카 지방을 직접 순시하여 청의 지배를 확인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표 2] 친충-승덕년간 후금-청의 와르카 정벌

연도	노획	출전 (『清太宗實錄』)
1631년	남자 1219명 · 부녀 1284명 · 幼丁 603명	권8 天聰5/2/甲戌
1634년	니만지방(尼滿地方) 와르카 천여명	권21 天聰8/12/癸酉
1635년	壯丁 560인 · 부녀 500명 · 幼丁 90명 · 가축 660마리	권23 天聰9/4/甲辰
1635년	장정 1,160명 · 부녀 140명 : 총 호구 1,300명	권25 天聰9/10/癸未 ; 권25 天聰10/3/庚申
1636년	壯丁 490명, 婦女 · 幼丁 1,240명	권28 天聰10/4/庚辰; 권28 天聰10/4/己丑
1636년	장정 295명, 부녀 · 幼丁 693명	권28 天聰10/4/辛丑
1636년	남자 361명 · 부녀 362명 · 유정 147명	권29 崇德1/5/丙午

후금-청이 동해의 와르카를 복속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은 무엇보다 이들을 팔기에 편입시켜 후금-청의 병력을 증강시키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와르카를 공격할 때마다 반드시 사람들을 포로로 노획하여 데려오고, 출전하는 병사들에게 포로를 위무할 것을 강조하고, 투항한 와르카

64) 天命-崇德년간 와르카·후르하 정복 과정에 대해서는 佟冬 主編, 1998, 『中國東北史』 3권,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793~804쪽.

65) 『清太宗實錄』 권33, 426下(崇德1/1/壬戌).

66) 『清太宗實錄』 권37, 480下(崇德2/7/己巳).

67) 『清太宗實錄』 권39, 506上(崇德2/10/辛亥).

수장들을 교외로 나아가 맞이하고 토지와 가옥을 하사하여 환대했다. 일찍이 누르하치는 “조선인 열을 얻는 것은 몽고인 하나를 얻는 것만 못하며 몽고인 열을 얻는 것은 만주 부락민 하나를 얻는 것만 못하다. 族類가 같으면 언어가 같고 환경[水土]이 같고 의복과 거처가 같고 수렵하는 풍습이 같다”고 강조했다.<sup>68)</sup> 누르하치와 마찬가지로 홍타이지 역시 와르카를 복속시키고 이들 대부분을 만주팔기에 편입시켰다. 새로 획득한 호구는 팔기에 균분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1634년(天聰8)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 한 구사에 30개 니루를 기준으로 하여 丁額이 부족한 기분에 戶口를 배분했다.<sup>69)</sup> 1637년(승덕2) 청태종은 팔기는 모두 국가의 사람임을 강조하고 “새로이 나누어 준 후르카·와르카를 도망치거나 굶주려 죽게 하여 니루에 缺額이 생기면 나는 곧 (이들을) 撫養하지 못한 버일러 휘하의 食口糧家人으로 결약을 보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sup>70)</sup> 1638년(승덕3) 청 태종은 “귀부해온 한인·몽고·후르카·와르카를 모두 여러 왕·버일러·버이서에게 나누어 주고 기르게 했음”을 다시 환기시키고 이들 투항민들은 “부모의 나라를 버리고 귀부한 자들이니 괴롭히지 말고 은혜로 잘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71)</sup>

팔기로 편입시키지 않은 와르카·후르하인들은 旗籍이나 民籍에 속하지 않는 邊民, 즉 변경의 소수민족으로 원래 거주지에 남겨졌다. 청은 이들을

68) 蕭一山 편, 2006, 『清代通史』,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部, 제1권, 44쪽.

69) 이주시킨 와르카·후르하인들은 공을 세운 버일러와 대신들에게 분급되기도 했다. 또한 기존의 니루에 편입되기도 하고 귀순한 후르하인을 니루어전으로 삼아 같은 후르하인을 관할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후금-청이 아무르강 중류-우수리강 하류 지역민을 팔기로 편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마쓰우라 시게루(松浦茂), 2006, 『清朝のアムル政策と少數民族』,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24~226쪽. 한편 1634년(天聰8) 당시 홍타이지는 557명의 와르카 장정을 배분하면서 자신이 거느린 양황기에 가장 많은 200명을 배분함으로써 휘하의 니루 장정을 확대하고 다른 버일러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는 데 이용했다. 八家均分에 대한 홍타이지의 도전에 대한 설명은 김선민, 2014, 「청 초기 팔기와 조선 무역」, 『史叢』 82, 142쪽.

70) 『清太宗實錄』 권34, 444下 (崇德1/4/丁酉). 여기서 말하는 “食口糧家人”은 “beile sei booi sini jeku i haha,” 즉 버일러의 보이를 가리킨다. “食口糧家人”에 대한 설명은 增井寬也, 2008, 「清初ニル類別考」, 『立命館文學』 608, 120~121쪽, 126쪽.

71) 『清太宗實錄』 권42, 556上(崇德3/7/丁丑).

촌락의 頭目인 가산-다(gašan i da)과 씨족의 우두머리인 할라-다(hala i da)를 통해 지배하고 병역 대신 모피를 공납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실제로 동해의 후르하이들은 1599년에 이미 누르하치에게 찾아와 여우와 담비 가죽을 바치기 시작했는데, 홍타이지 시기에 이르러 청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가 흑룡강 중류에서 우수리강 하류까지 확대되면서 초피를 바치는 동해 부락민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당시 홍타이지는 초피를 바치러 온 동해의 부락민들을 궁에서 맞이하고 모자·신발 등의 하사품을 내렸다.<sup>72)</sup>

후금의 세력이 동해의 와르카까지 미치면서 조선과의 갈등은 불가피해졌다. 1609년(만력37, 광해1)에 이르러 누르하치는 명의 만력제에게 “조선의 변경에 거주하는 와르카인은 모두 나의 사람이니 (조선으로 하여금) 그들을 찾아서 나에게 보내라고 해달라”고 요청했고, 명의 지시에 따라 조선은 와르카 천 戶를 건주여진으로 송환했다.<sup>73)</sup> 홍타이지 시기에 이르러 와르카 송환 문제는 후금-조선 관계에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 되었다.<sup>74)</sup> 1627년(天聰1, 인조5) 홍타이지는 즉위 직후부터 조선에 보낸 글에서 과거 만주 군대가 “우리 와르카”를 취하러 갔을 때 조선이 공격해 왔음을 비난했다.<sup>75)</sup> 1633년(천총7)에 이르러 홍타이지는 조선에게 후금과 와르카의 밀접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부잔타이는 몽고에서 왔으니 곧 몽고의 후예이다. 와르카와 우리는 함께 여진의 땅에서 거주했고, 우리가 건국한 발상지는 大金의 (발상지와) 같으니 와르카는 곧 우리나라의 백성이다. 과거 부잔타이가 우리나라에서 보낸 백성을 침략하여 두 나라가 전쟁에 이른 것은 귀국 또한 이미 들어 알고 있을

72) 松浦茂는 天命11년부터 順治10년까지 『청실록』에 기록된 邊民의 貢納 기록을 표로 정리했다. 松浦茂, 2006, 앞의 책, 228~229쪽.

73) 『만주실록역주』, 2014, 151~152쪽.

74) 와르카인 송환을 둘러싼 후금과 조선의 갈등의 구체적인 정황은 김종원, 1999,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해안, 138~142쪽에 설명되어 있다.

75) 『滿文老檔』, 1959, 4권, 太宗1, 39쪽(天聰1/1/28). 같은 해 7월에 보낸 글에서도 조선 병사들이 “1619년 우리의 동고와 와르카시 지역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비난했다. 『滿文老檔』, 1959, 4권, 96쪽(天聰1/7/19).

것이다. 지금 이들을 찾아내려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보낸 자들이 정벌하러 갈 때 땅이 귀국과 가깝고 평소에 친하여 人畜과 재물을 맡긴 자도 있고 혹은 마음대로 뒤에 남은 자도 있었다. 지금 찾아내려는 자들이 이들이니 어찌 이유없이 색출하는 것이겠는가?<sup>76)</sup>

1636년(천홍10)에도 홍타이지는 후금에 속한 동쪽의 와르카 가운데 조선으로 달아난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여러 번 요구했으나 조선이 이를 듣지 않는다고 비난했다.<sup>77)</sup> 조선에 거주하는 와르카는 병자호란 당시 청을 위한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1636년(송덕원년) 조선 정벌에 참여한 豫親王 호쇼이 버일러 도도(多鐸)는 조선에 거주하는 와르카 葉辰·麻福塔가 100여 호를 데리고 투항하자 이들을 심문하여 “조선의 四道에서 원병을 모아 한양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얻어 이를 청 태종에게 전했다. 투항한 葉辰·麻福塔는 이후 청 태종을 알현하여 三跪九叩頭를 행하고 비단과 초피를 하사받았다. 또한 청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하자 조선에 거주하는 와르카 200호가 청에 투항하기도 했다.<sup>78)</sup>

1637년(송덕2년) 정월 청 태종은 조선을 공격하면서 다시 와르카 송환을 요구했다. “조선이 소유한 와르카는 모두 마땅히 쇄환해야 한다. 일본과의 무역은 조선이 원하는 대로 예전과 같이 하되, 마땅히 그 사신을 인도하여 來朝하게 해야 하며 짐 또한 사신을 파견하여 그들과 왕래할 것이다. 동쪽의 와르카 가운데 사사료이 그곳(일본)으로 달아나는 자는 다시는 무역하지 못하게 한다. 조선이 만약 와르카를 보면 곧 쇄환해야 한다.”<sup>79)</sup> 조선을 군사적·정치적으로 완전히 굴복시킨 후에도 청은 조선에 거주하는 와르카를

76) “布占泰來自蒙古，乃蒙古苗裔，瓦爾喀與我，俱居女直之地，我發祥建國，與大金相等，是瓦爾喀人民，原係我國人民也。昔年布占泰，侵掠我國所遣人民，我兩國由此構兵，貴國亦常聞之矣。今索取之由，蓋以實係我國所遣向征取時，因地近貴國，素爲親友，有將人畜財物寄留者，亦有私自逗留在後者。所索祇此等人耳，豈無故而索取哉。”『清太宗實錄』 권15, 207下(天聰7/9/癸酉).

77) 『清太宗實錄』 권28, 370上(天聰10/4/己丑).

78) 『清太宗實錄』 권32, 412下, 415上·下(崇德1/12/乙未).

79) “爾國所有瓦爾喀俱當刷送，日本貿易聽爾如舊，當導其使者來朝，朕亦將遣使與彼往來也，其東邊瓦爾喀，有私自逃居於彼者，不得復與貿易往來，爾若見瓦爾喀人，便當執送。”『清太宗實錄』 권33, 430下(崇德1/1/戊辰).

데러오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선을 압박했다. 1640년(송덕5) 청이 와르카를 모두 송환하고 도망자를 결박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자, 조선은 충청도에 거주하는 와르카 金奉을 찾아내 그의 모친 및 부인과 함께 청에 돌려보냈다.<sup>80)</sup> 청의 계속되는 송환 요구에 대응하여 조선은 두만강 너머로 이주한 조선인도 마찬가지로 조선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조선이 也春으로 달아난 조선인 20명을 송환할 것을 요청하자 청은 20명 가운데 6명은 조선인이지만 나머지 14명은 “우리나라의 와르카로, 조선으로 도망했다가 다시 (청으로) 돌아온 자”라고 설명했다.<sup>81)</sup>

1640년(송덕5) 10월 청 황제의 사신으로 온 잉골다이는 “와르카 家屬을 모두 찾아내지 않는 것”은 조선 국왕의 죄라고 지적했다.<sup>82)</sup> 조선은 반복되는 청의 와르카 송환 요구에 부응해야 했다. 1640년(송덕5) 조선은 청에 자문을 보내 경원에 무역하러 갔던 자가 와르카 여인 한 사람을 발견했으며 조사 결과 그녀는 원래 “河尋費耐 部落”의 사람이었는데 병자호란 시기에 남편과 함께 청군에 붙잡혔다가 도주한 자라고 보고했다. 조선은 이 여인을 原籍이나 也春으로 돌려보내야 하나 청군이 포로로 잡았던 사람이니 어떻게 처리하고 인계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청에 문의했다.<sup>83)</sup> 동시에 조선은 와르카 송환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와르카가 (조선에) 투항해 온 지 이미 오래되어 백여 년이 되었으니 그 자손은 모두 우리 백성입니다. 간혹 賦役을 피하려는 자들이 오히려 와르카라고 거짓 칭하거나 와르카의 옛 거주지에 숨어 살기도 합니다. 저들에게 속이고 거짓을 고한 죄는 있으나 법으로 (이들을) 쇄환할 수는 없습니다.<sup>84)</sup>

80) 『清太宗實錄』 권50, 663上(崇德5/1/甲子). 조선에서 청으로 송환된 金奉은 23세, 모친 莫介는 45세, 처 金숨는 18세였다. 『清太宗實錄』 권51, 681下(崇德5/4/庚午).

81) 『清太宗實錄』 권52, 689下(崇德5/6/丁卯).

82) 『清太宗實錄』 권53, 706上(崇德5/10/壬戌).

83) 조선의 馳啓에 따르면 청군으로부터 도망친 후 이 여인과 남편은 산에서 草根으로 연명하다가 後春 강변에 이르러 물고기를 잡아먹고 풀로 집을 지어 살았는데 이후 불이 나서 남편은 타죽고 부인만 살아남았다. 조선은 이 지역 둔전을 관장하는 관리[管屯官] 許奉新이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驛衙에서 살게 한 죄를 물어 혁직했다. 『清太宗實錄』 권52, 701下(崇德5/8/甲子).

청의 와르카 송환 요구는 조선과의 관계가 안정된 후에야 비로소 중단되었다. 1644년 순치제는 즉위 직후 인조에게 유지를 내려 조선에 거주하는 와르카를 청으로 송환하게 했던 부친 홍타이지의 지시를 영구히 중지하라고 명했다.<sup>85)</sup> 순치제의 송환 중지 명령은 당시 섭정 도르곤의 대조선 유화 정책의 하나였다. 홍타이지 시기 청과 조선의 관계를 경색시켰던 소현세자와 조선의 반청 관료들의 심양 억류, 과도한 歲幣 요구, 청의 대명 전쟁을 위한 군사와 물품 지원 강요 등 여러 가지 현안은 순치제가 등극하고 도르곤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점차 완화되었다. 와르카 색출과 송환 요구 역시 이때에 이르러 해소되었다.<sup>86)</sup>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청은 제국의 동쪽 변경에 거주하는 와르카에 대해 17세기 초와는 다소 다른 인식을 갖게 되었다. 1671년(강희10) 강희제는 영고탑 장군에게 와르카와 후르해[胡爾哈]는 습성이 포악하고 간사하게 속이는 경향이 있으니 이들에 대한 教化에 힘쓰라고 지시했다.<sup>87)</sup> 황제에게 와르카는 이제 더 이상 팽창하는 후금의 병력을 보충해줄 인력원이 아니라, 문명화된 제국이 가르치고 다스려야 할 변방의 미개한 부족이었다. 1706년(강희45)에 이르러 황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국왕을 보니 매사에 공경하고 삼가하며 그 國人들 또한 모두 (청에) 감사하고 있다. 듣건대 그 나라에 八道가 있어 북쪽은 와르카 지방의 토문강과 경계를 접하며, 동쪽은 일본[倭子國]과 접하며 서쪽은 우리의 봉황성과 접하며 남쪽은 바다에 접하여 작은 섬들이 얼마 있다고 한다.”<sup>88)</sup> 18세기 청 황제에게 와르카는 곧 조

84) 『清太宗實錄』 권54, 726下(崇德6/1/甲辰).

85) 『清世祖實錄』 권4, 52下(順治1/4/戊辰). 순치제의 諭旨에 조선국왕 인조는 곧 사신을 보내어 이에 감사했다. 『清世祖實錄』 권6, 67下(順治1/7/丁酉).

86) 劉爲, 2005, 「試論攝政王多爾袞的朝鮮政策」, 『中國邊疆史地研究』 15:3, 95~98쪽.

87) 『清聖祖實錄』 권37, 494上(康熙10/10/辛巳).

88) “論大學士等曰, 觀朝鮮國王, 凡事極其敬愼, 其國人亦皆感戴. 聞其國有八道, 北道與瓦爾喀地方土門江接界, 東道接倭子國, 西道接我鳳凰城, 南道接海, 猶有數小島.” 『清聖祖實錄』 권227, 275上(康熙45/10/丁未).

선과의 인접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 4. 변경 무역

병자호란을 통해 청과 조선의 상하질서가 조공관계를 기반으로 공고해지면서 두만강 일대 거주민에 대한 청의 통치도 점차 강화되어 갔다. 입관 직전 청은 이 지역에서 반란에 직면했다. 1639년(송덕4, 인조17) 청의 병부가 조선에 보낸 자문에 따르면 “극동의 모피를 바치는 거주민(極東進皮張的居民)” 慶河昌 일당은 후금-청을 배반하고 熊島로 달아나 조선의 경흥·아오지보 등지와 왕래하며 교역했다. 청과 조선이 조공관계를 맺은 후에도 이들 중 일부가 熊島[lefu tun, 勒富通, 埒富島]에 남아 진공을 바치지 않자 청은 조선에 수군[舟師] 천명을 파견하여 섬을 함락하고 경하창 등 두목을 잡아 보낼 것을 지시했다. 『청태종실록』은 이들을 “동방의 쿠르카(東方庫爾喀)”라고 불렀는데,<sup>89)</sup> 당시 청조는 경하창 등 체포된 쿠르카인 남녀 500여 명이 먹을 양식이 없으므로 조선에게 이들을 구출하게 하는 한편 쿠르카인들을 “鄗朱屯(yanzhu tun)”으로 옮겨 매해 貂皮와 海貂를 진공하게 했다.<sup>90)</sup> 또한 “경원과 경흥 사이에 있는 야춘 지방으로 여러 섬에서 포획한 귀순하지 않은 種族 500여 명을 이주시킬 것”임을 조선에 통보하고 이어 경흥부의 북쪽에 둔전을 설치했다.<sup>91)</sup> 이듬해 1640년(송덕5) 戶部の 沙乙糾(薩爾糾)가 야춘에 와서 응도에서 사로잡은 남녀 포로 100명을 심양으로 데려갔다.<sup>92)</sup>

89) “先是東方庫爾喀叛入熊島。上命朝鮮以兵討之。擒叛首加哈禪·額益都里至。詢之，言康古禮·喀克篤禮·車齊克墨爾根·薩爾糾等，謀從朝鮮走入熊島，約令叛逃，事下法司鞠訊。” 『清太宗實錄』 권49, 650下(崇德4/10/己丑)。

90) “又從前庫爾喀歸降進貢一百四十九人，并新獲二百九十二人，俱留置鄗朱屯中，令每年進貢貂皮海豹等物。” 『清太宗實錄』 권52, 695上 (崇德5/7/癸未)。 테라우치에 따르면 여기에서 말하는 “鄗朱屯”이 곧 야춘이었다. 寺內威太郎, 1985, 앞의 논문, 8쪽.

91) “清國移書曰，我兵捕獲諸島未歸順種落五百餘口，將移置于慶源·慶興之間也春地方。” 『조선인조실록』 권40, 10a(인조18/2/병진) : 권40, 11a(인조18/2/계해).

92) 『조선인조실록』 권40 21b(인조18/4/24). 『清太宗實錄』 권50, 670上(崇德5/閏1/甲申)。

17세기 초 청이 두만강 일대 거주민을 복속시키는 일련의 과정은 조선의 변경무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정묘호란으로 조선과 兄弟之盟을 체결한 흥타이지는 명과의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후금의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선과의 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후금의 지속적인 요구로 1628년(천총2) 양국은 압록강변의 중강에서 개시를 열기로 결정했다. 곧이어 흥타이지는 회령에서도 개시를 열 것을 요구했다. “이제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어 중강에서 크게 개시하고 있다. 생각컨대 동쪽 변방의 백성은 원래 회령에서 개시했으니, 지금 이곳(中江)에서 개시하는 것을 보고 모두 회령에 가서 무역하고자 하나 王命이 없으니 회령의 관리가 어찌 마음대로 결정하겠는가. 따라서 실상을 갖추어 미리 알리니 옳다고 여기면 속히 회령의 관리에게 명하여 遵行하게 하라.”<sup>93)</sup> 조선은 전쟁으로 국력이 피폐해져 압록강과 두만강 양쪽의 무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호소했다. 그러나 흥타이지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1628년(천총2) 12월 조선은 회령에서 개시를 시작했다.<sup>94)</sup>

1628년 개설 당시에는 회령개시의 참여인수·규모·일자·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때문에 개시에 참여하러 오는 후금의 관병과 상인은 조선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sup>95)</sup> 1632년(천총6) 흥타이지는 개시에 참여하는 상인의 수는 미리 정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선은 이들에게 식량과 마초를 공급하라고 요구했다.<sup>96)</sup> 1637년(송덕1) 청과 조선의 군신관계가 수립되면서 개시에서의 의례도 달라졌다.<sup>97)</sup> 1638년(송덕3) 8월 청은 회령의 조선 지방관이

93) “今兩國既成一國，中江大開關市。竊思東邊之民，原在會寧做市矣，今見此處開市，皆欲往會寧貿易，料無王命，會寧官豈敢擅專，故具悉預報，如允當，速令會寧官遵行。” 『조선인조실록』 권18, 30a(인조6/2/갑인).

94) 아래에서 보듯이 『통문관지』에서는 회령개시가 1638년(송덕3)에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1628년(천총2)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張杰, 2010, 『清前期吉林滿族與朝鮮邊境貿易論述』, 『中國邊疆史地研究』 제20권 제4기, 58쪽.

95) 郭慶濤, 1997, 『試論17世紀中葉至18世紀清朝與朝鮮的會源邊市貿易』, 『韓國學論文集』 제6집, 46~47쪽.

96) “조선의 상인이 심양에 오면 (후금에서) 예에 따라 공급했으니 후금의 상인이 조선의 변경과 의주에 이르면 또한 공급을 받아야 한다. 지금 회령은 조선의 땅이고 이밖에 가는 상인은 모두 후금의 상인이니 공급하는 예를 서로 다르게 해서는 안된다.” 『조선인조실록』 권26, 31a(인조3/29/병인).

현지에 무역하러 간 영고탑 상인들을 “예로써 대하지 않고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회령부사가 상인들을 직접 맞이하지 않았고, 문을 잠가두고 상인들을 오랫동안 성에 들이지 않았으며, 이들을 위한 숙소가 정돈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조선은 “변경의 호시와 勅使(의 방문)이 다르기는 하나 모두 上國人이니 지방관이 성 밖으로 나아가 맞이하고 성내의 숙소에서 접견하는 것이 모두 마땅한 예의이나, 변방의 관리가 예절에 밝지 않아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해명했다.<sup>98)</sup> 청과 조선의 군신관계가 수립되면서 회령 개시에 참여하는 청인 상인들 역시 칙사에 준하는 대접을 받게 된 것이었다.

경원개시는 회령개시보다 훨씬 늦은 1646년(순치3, 인조16)에 시작되었다. 당시 청은 두만강 일대의 와르카 가운데 서쪽으로 이주하지 않고 남은 현지인들은 조선과의 교역을 통해 물자를 해결하게 했다. 이보다 앞서 1640년(송덕5, 인조18) 청은 야춘에 천여명이 둔전하고 있으니 조선에서 곡식을 보낼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sup>99)</sup> 그러나 두만강 일대의 거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정기적인 교역이 필요했다. 청은 회령에 이어 경원에도 개시를 열 것을 요구했고, 이에 조선은 1646년부터 경원개시를 시작했다. 회령·경원 개시는 『통문관지』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회령은 1638(송덕11, 인조16) 寧古塔 사람들이 호부에 표문을 가지고 와서 농기를 무역했다. 이를 관례로 삼아 1642(송덕15, 인조20)에 也春인들이 또 왔고, 1694(강희33, 숙종20)에 烏喇인들이 또 왔다. 경원은 1646년(순치3, 인조24) 巖丘 賴達湖 戶人이 와서 농기를 무역했고 1654년(순치8, 효종5)에

97) 張杰, 2010, 앞의 논문, 59~60쪽.

98) “看詳邊上互市與敕使固不同, 而既係上國人, 則地方官出迎城外, 館接於城內客舍, 皆禮所不可已者, 而邊臣不嫻禮節, 有此失誤.” 『清太宗實錄』 권44, 585~586쪽(崇德3/11/甲申).

99) 당시 이러한 청의 요구에 조선이 빨리 응하지 않자 청의 장수는 慶興府使의 머리채를 잡고 창고를 열어 곡식 50석을 강탈해 갔다. 청의 위협이 날로 심해지자 조선은 결국 이들이 요구하는 곡식 3,400석을 보냈다. 『조선인조실록』 권40, 11a(인조18/2/계해) ; 권40, 17b(인조18/3/병신).

枯兒凱의 新戶人이 또 왔다.<sup>100)</sup>

『同文彙考』 역시 순치년간 경원으로 무역하러 온 청인들을 언급한다. 순치6년 조선조정은 “(조선의) 民人들로 하여금 巖丘 지방의 거주민과 국경에서 개시하고 (그들이) 구하는 농기와 소 등 물건을 팔게 했다”고 청에 알렸다.<sup>101)</sup> 순치11년 1월 청 예부는 “枯兒凱의 賴打庫<sup>102)</sup> 등이 말하기를 鴨客素河에서 이주해온 사람들과 이곳에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이 모두 耕牛·가래[鏟]·쟁기[犁]·식염·숯[鍋口]이 없다고 하니, 北京의 8품 통사 2원과 盛京의 비터시[筆帖式] 1원을 파견하여 조선 경원에 가서 교역하게 한다”고 보고했다.<sup>103)</sup> 이어 같은 해 4월 경원부사는 “上國의 開市差官 金命先·張孝禮 등이 厚春 開市人들을 데리고 本府에 이르러 (중략) 전례에 따라 民人들로 하여금 각자 소와 각종 물건을 가지고 양측이 평등하게 교역하여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했다”고 보고했다.<sup>104)</sup>

여기에 등장하는 枯兒凱은 쿠르카(kürka, 庫爾喀)를 가리킨다. 董萬倫에 따르면 쿠르카(kürka, 庫爾喀)와 쿠아라(küyara, 庫雅喇, 庫雅拉, 苦雅拉)는 같은 부족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으로, 이들은 원말명초의 골간 우디거의 후예이며 청대에 이르러 훈춘으로 이주하여 旗籍에 편입되어 쿠아라 만주가 되었고, 오늘날 길림성 훈춘현의 土着 滿族은 쿠아라의 후손이다.<sup>105)</sup> 반면 마스이 칸 야(增井寬也)는 쿠르카와 쿠아라는 원래 서로 다른 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쿠르카는 송덕년간에 안추 지방(炎楮地方)에 거주하다가 순치년간에 훈춘으로

100) 『通文館志』 卷3 「事大」, 63b (『국역 통문관지』, 1998, 제1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85-186쪽).

101) 『同文彙考』, 1978, 국사편찬위원회, 原編 권45 「交易」 6b, “巖丘完市申文.”

102) 테라우치는 『同文彙考』에 등장하는 “枯兒凱”와 “賴打庫”를 별개의 집단으로 해석했으나, 『淸太宗實錄』에서 “虎爾哈部落賴達庫等”으로 여러 차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賴打庫(賴達庫)”는 쿠르카의 수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인다. 『淸太宗實錄』 권44, 587上 (崇德3/11/甲申) : 권44, 587下 (崇德3/12/癸巳) : 권63, 871上 (崇德7/11/庚午). 마쯔우라 시게루(松浦茂) 역시 테라우치의 오해를 지적했다. 松浦茂, 2006, 앞의 책, 271쪽, 각주 16).

103) 『同文彙考』, 1978, 原編 권45 「交易」 7a-8a “禮部知會慶源開市咨.”

104) 『同文彙考』, 1978, 原編 권45 「交易」 8b “完市咨.”

105) 董萬倫, 1987, 「清代庫雅喇滿洲研究」 『民族研究』, 96-97쪽.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반면, 쿠아라는 안추·훈춘에서 멀리 우수리강 상류에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켰다. 강희 10년에 이르러 쿠르카는 대부분 훈춘을 떠났고, 대신 우수리강 유역의 쿠아라가 길림 우라의 주방 팔기에 편입되어 “쿠아라 만주”로 분류되어 훈춘에 배치되었다. 훈춘의 쿠아라 만주가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이름대로 쿠르카라고도 불리면서 쿠르카와 쿠아라가 같은 부족으로 여겨지게 되었지만, 실제로 여러 쿠아라 가운데 훈춘에 거주하는 쿠아라만이 쿠르카로 불렸다는 것이다.<sup>106)</sup>

쿠르카의 거주지 역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앞서 『청태종실록』은 쿠르카인들이 둔전한 곳을 “鄗朱屯”이라 하고 『조선인조실록』은 “경원과 경흥 사이에 있는 야춘 지방”이라 한 것으로 보아 鄗朱와 也春은 같은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통문관지』와 『同文彙考』에서 말하는 “巖丘(yanqiu)”는 鄗朱(yanzhu)·巖杵河(yanchu)·延楚河(yanchu)와 발음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역시 야춘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sup>107)</sup> 경원개시는 야춘 [巖丘]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巖丘開市”라고도 불렸으며, 조선의 북방에서 열리는 개시라 하여 “北道開市” 혹은 “北關開市”라고도 불렸다.<sup>108)</sup>

회령·경원의 개시 규정은 1660년(순치17, 현종1)에야 비로소 제정되었는데, 그전까지 불분명한 개시 규정으로 인해 각종 폐단이 발생했다. 조선은 “당초 개시에 왕래하는 자는 200여 명, 우마는 500여 필에 불과했으나, 이번에 영고탐에서 온 사람은 594명, 우·마·낙타의 수는 1,144필에 달한다”고 보고했다.<sup>109)</sup> 이때 이르러 청은 비로소 회령과 경원 개시의 참가인원과 마소의 수를 삭감하고 체류 일자도 제한했다. “순치16년에 왕래한 자 594명에서 274명을 감하여 320명을 정하고, 말·소·낙타 1,144마리에서 504필

106) 増井寛也, 1989, 「クルカKürkaとクヤラKüyala - 清代琿春地方の少数民族」, 『立命館文學』 514.  
 107) 반면 董萬倫은 鄗朱(巖丘)와 也春은 음이 비슷하기는 하나 서로 다른 곳이며 야춘은 포시에트 만의 남쪽 해변이라고 말한다. 董萬倫, 1987, 앞의 논문, 99쪽.  
 108) 郭慶濤, 1997, 「試論17世紀中葉至18世紀清朝與朝鮮的會源邊市貿易」, 『韓國學論文集』 6, 48쪽.  
 109) 당시 함경도는 소 235마리, 釜 372개, 犁 710마리를 준비했다. 『同文彙考』, 1978, 原編 권 45, 「交易」 18a-19b “淸定開市式例咨.”

을 감하여 640필로 정한다. 왕래하는 교역인인 20일 전에 돌아야한다.” 그러나 훈춘은 예외적이었다. “厚春은 (경원의) 교역처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올 수 있으니 논외로 한다.”<sup>110)</sup>

18세기에 이르러 두만강 일대 거주민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청의 행정체제도 발전해갔다. 1653년(순치10)에 청은 寧古塔 昂邦章京을 설치하여 동남으로 360리 떨어져 있는 훈춘까지 관할하게 했다. 1729년(옹정7) 寧古塔 昂幫章京의 후신인 寧古塔將軍이 길림우라로 이주한 이후로 훈춘은 영고담 부도통의 소속이 되었다. 청은 초기에 훈춘의 쿠르카 거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물을 진상하게 하다가 1713년(강희52)부터 이들의 조공 의무를 해제했다. 대신 1714년(강희53)에 “琿春庫雅喇地方協領”을 설치하여 쿠르카인 150명을 세 개의 니루로 편성하고 영고담에서 40명의 팔기 만주병을 이주시켜 모두 190명의 병사와 협령 1인, 좌령 3인, 비터시 3인을 배치했다.<sup>111)</sup> 당시 鑲黃旗·正黃旗·正白旗의 上三旗를 설치하여 쿠르카의 가산다 세 사람이 각각 世管佐領을 맡았다. 쿠르카인들은 수달을 채렵하여 바치는 부족민에서 팔기병으로 재편되었고 이로써 훈춘의 쿠르카 만주[庫雅喇滿洲]가 등장하게 되었다.<sup>112)</sup>

훈춘에 협령이 설치되고 旗民이 이주하면서 경원개시를 중심으로 한 조선과의 교역도 더욱 활발해졌다. 강희초기까지 경원개시에서는 훈춘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수요가 많았던 소(牛)가 다수 거래되었다. 1670년대 회령과 경원개시의 교역품이 급감했던 것은 당시 삼번의 난으로 동북지역의 주방 팔기가 내지로 대거 이주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삼번의 난이 평정되고

110) 『同文彙考』, 1978, 原編 권45, 「交易」 20a-20b “禮部減定開市式例咨;” 「咸鏡道會源開市定例」, 1990, 『各司臚錄』 46권, “名額,” 국사편찬위원회, 487~488쪽.

111) “寧古塔將軍覺羅孟俄洛疏請, 將三姓及渾春之庫雅拉人等, 編爲六佐領, 添設協領二員, 佐領·防禦·驍騎校各六員管轄, 從之.” 『清聖祖實錄』 권257, 548上 (康熙53/1/戊辰); 『八旗通志初集』, 1989, 吉林: 東北師範大學出版社, 권27, 「奉天駐防甲兵」.

112) 增井寛也, 1989, 「クルカKürkaとクヤラKüyalä」, 53쪽; 董萬倫, 1987, 앞의 논문, 101-102쪽; 張杰·張丹卉, 2005, 『清代東北邊疆의滿族』,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59-63쪽; 『琿春副都統衙門檔』, 2007,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中國第一歷史檔案館 合編,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제1권, 1~4쪽.

네르친스크 조약이 체결되면서 훈춘을 포함한 동북지방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조선과의 개시도 점차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1709년(강희48) 길림·영고탑 지역을 측량하기 위해 훈춘에 들어간 프랑스 선교사들은 이 지역에서 농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했다. 1712년(강희51) 장백산 일대를 탐사한 穆克登 일행 역시 귀로에 훈춘을 경유했다. 훈춘 일대의 거주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경원개시는 1759년(건륭24, 영조35)에 이르러 다시 재 정비되었다. 이때 제정된 「咸鏡道會源開市定例」는 경원개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경원에서 下馬宴은 다음날 혹은 당일에 연다. 厚春 상인이 公市를 여는 것을 기다려 양측 관원이 外三門에 함께 앉는다. 쟁기[犁]·도끼[釜]·소[牛] 세 종류를 공급하고 값을 받는다. 소에는 낙인을 찍는다. 公市가 1-2일 끝난 후 差使員들은 먼저 돌아가고 私市를 연다. 厚春 상인들은 수레에 물건을 싣고 연이어 오니, 곧 三頭戶 및 厚春의 將帥와 (상인) 頭目은 차례로 동쪽 벽에 나란히 앉고 지방관은 서쪽 벽에 앉는다. 무역을 감독하고 3일이 되면 파한다. 이어 馬市를 허용하지만 1-2일을 넘기지 않고 파한다.”<sup>113)</sup>

경원 개시는 매년 열리는 회령개시와 달리 2년에 한번씩 12월부터 이듬해 1월에 열렸다. 훈춘에 팔기주방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청 예부의 통사와 “厚春의 淸人” 즉 쿠르카 수장들이 경원에 와서 교역했다. 1714년 훈춘협령이 설치된 후부터는 주방 팔기병이 예부의 통사와 함께 왔다. 1660년의 규정에 따라 경원에서는 예부 통사·훈춘 팔기병 및 그들의 家丁에게만 식량과 사료를 지급했고 당일로 돌아갈 수 있는 훈춘의 상인들에게는 별도의 접대가 없었다. 훈춘좌령은 回禮로 사슴가죽[麂皮]을 지불했다. 경원개시는 거래대상이 훈춘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회령개시에 비해 公市의 거래물품이 적었다. 공사에서 청은 조선의 물품 가치에 비해 낮은 가격을 지불했는데, 郭慶濤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은 公市가 실제로 청에 대한 조선의 歲幣로

113) 「咸鏡道會源開市定例」, 1990, “宴饗,” 489쪽.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반면 私市나 馬市는 비교적 자유로운 사무역이었으며 다양한 물건이 거래되었다.<sup>114)</sup>

1777년(정조1) 경흥부사로 3년간 부임한 洪良浩(1724-1802)는 北關의 각지를 답사하고 『北塞記略』을 완성했다. 이 가운데 「江外記聞」은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 지역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渾春 부락은 경원 강북 십여리에 있다. 속칭으로 後春이라 한다. 室屋을 분별할 수는 없으나 멀리 炊煙을 보면 모두 煙筒을 만들었으니 (조선의) 六鎭의 풍습과 같다. 관부에서는 鄴城과 후춘은 한 고개 간격이라고 한다. 경원에서 70리에 協領·佐領·防禦 등의 관리가 있다. 鄴城과 후춘 등지는 땅이 넓고 비옥하여 사람과 물자가 모여든다. 목축하는 것은 소·말·개·돼지·검은말[驪]·노새·새끼양[羔]·양 등으로 요(양)·심(양)지역과 같다. 수십 년 전에는 교역하며 왕래하는 수레가 천 대, 말이 4-500마리에 불과했으나 근래에는 수레가 4-5천대에 이르고 말 또한 이와 같다. 이것으로 人戶는 대략 5-6천으로 추측된다. (중략) 鄴城은 서쪽으로 5리에 두(만)강이 있고 동쪽으로 7리에 후춘강이 있고 북쪽으로 12리에 후춘 부락이 있다. 성은 흙으로 지었으며 안에는 우물이 여섯 개 있다. 奚關이라고도 한다.<sup>115)</sup>

홍양호와 비슷한 시기인 1783년(건륭48, 정조7) 함경도를 순시하고 경원개시를 직접 목격한 洪儀泳(1750-1815)은 청과 조선의 교역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厚春·鄴城 두 곳은 경원과 불과 10리에 있다. 교역할 때 모두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며, 남자 여자 어린이 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 거래되는 물품은 마필은 극히 적고 피물이 많으며 기타 잡물은 단지·바구니부터 개·돼지까지 모두 가지고 온다. 書冊이나 紙筆墨은 두 곳에서 모두 거래하지 않

114) 「威鏡道會源開市定例」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寺內威太郎, 1985, 앞의 논문, 10~11쪽; 장준무 지음·김택중 외 옮김, 2000, 『근대한중무역사』, 교문사, 259~290쪽; 郭慶濤, 1997, 앞의 논문, 50~58쪽; 張杰, 2010, 앞의 논문, 64~67쪽; 고승희, 2003, 『조선후기 함경도 상업연구』, 국학자료원, 121~177쪽.

115) 洪良浩, 2004, 『北塞記略』 「江外記聞」, 176쪽.

으니, 아마도 여러 변방의 오랑캐[邊胡]들은 文墨을 받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시장의 규모나 인물의 번다함은 회령에 비할 수 없다. 회령에서는 양측 사람들이 비록 자기 의견을 주장한다 해도 결코 소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경원에 이르면 매매하는 물품이 모두 변쇄한 것들이라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서로 때리며 싸운다. 저들은 매번 구타를 당하여 중상을 입어 더라도 감히 우리나라의 관리들에게 호소하지 않으니 어떤 뜻인지 알 수 없다. 아마도 가까이 인접하여 익숙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데 간섭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sup>116)</sup>

## 5. 맺음말

본고에서 개괄한 훈춘의 역사는 여진-만주인이 만주를 배경으로 활동하고 성장하면서 인접한 조선과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접촉했음을 보여 준다. 훈춘을 둘러싸고 전개된 여진-만주인의 역사, 나아가 청과 조선의 역사는 기존의 단선적·영토 중심적·일국사적인 시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변경은 근본적으로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며 따라서 변경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의 관계가 달라지면 변경의 의미도 함께 변화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비로소 명의 영락제, 조선의 세종, 후금의 누르하치, 청의 강희제에게 훈춘이라는 동일한 공간이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중원과 한반도의 정치세력에게 변경이 지닌 정치적·역사적 의미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했던 것이다.

훈춘은 14세기 말-15세기 초 오도리·우랑하·우디거 등 여러 여진족이 거주한 곳이었고 조선이 판도에 넣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곳이었다. 이곳은 또한 16세기 말-17세기 초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후금-청의 세력

116) 洪儀泳, 1808, 「北關紀事」, “開市事宜,” 서울대 규장각자료(奎4224), 60b-61a. 여기에서 홍의영이 말하는 선성은 두만강 바로 옆에 있는 마을로 훈춘보다 경원에 더 가까웠으며 주로 가난한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洪儀泳, 1808, 「北關紀事」, “開市事宜,” 57b-58a.

확장과 병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략한 곳이었다. 청과 조선의 관계가 조공질서를 중심으로 재편·안정되면서 양국의 경제교류 역시 정례화·조직화되어갔다. 1646년부터 경원 개시가 시작되면서 훈춘 일대 거주민과 조선인과의 교역이 확대되고 1714년 훈춘에 팔기주방이 설치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리도 발전해갔다. 오랫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훈춘과 동북지역은 19세기 후반 러시아를 포함한 서양 열강의 압력으로 제국의 변경이 위태로워지자 비로소 민간인에게 개방되었다. 1880년대 훈춘이 개발되고 한인과 조선인 이주자들이 모여들게 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청의 동북 변경 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결과였다. 훈춘이라는 이 변경지역의 역사는 17세기 초 흥기하여 18세기 정점에 이르렀다가 20세기 초 멸망하기까지 청 제국의 등장과 발전을 한 지점에서 통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청 제국의 특징과 성쇠를 조선과의 변경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훈춘의 역사는 한중관계사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승희, 2003, 『조선후기 함경도 상업연구』, 국학자료원
- 『국역 통문관지』, 199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귀칭타오(郭慶濤), 1997, 「試論17世紀中葉至18世紀清朝與朝鮮的會源邊市貿易」, 『韓國學  
論文集』 6
- 김구진, 1973, 「吾音會의 韓朶里女眞에 對한 研究」, 『史叢』 17·18합집
- \_\_\_\_\_, 1974, 「初期 毛憐 兀良哈 研究」, 『白山學報』 17
- \_\_\_\_\_, 2004, 「조선 전기 여진족의 2대 종족 : 오랑캐(兀良哈)와 우디캐(兀狄哈)」, 『白  
山學報』 68호
- 김선민, 2013, 「한중관계사에서 변경사로 : 여진-만주족과 조선의 관계」, 『만주연구』 15
- \_\_\_\_\_, 2014, 「청 초기 팔기와 조선 무역」, 『史叢』 82
- 김중원, 1999,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혜안
- 동동(佟冬) 主編, 1998, 『中國東北史』 1-7권, 吉林文史出版社
- 동만륜(董萬倫), 1987, 「清代庫雅喇滿洲研究」, 『民族研究』 1987년 제4기
- \_\_\_\_\_, 2003, 「明末清初圖們江內外瓦爾喀研究」, 『民族研究』 2003년 제1기
- 『同文集考』, 1978, 국사편찬위원회
- 리우샤오명(劉小萌) 지음 · 이훈 · 김선민 · 이선에 옮김, 2013, 『여진부락에서 만주국  
가로』, 푸른역사 (2007, 『滿族從部落到國家的發展』, 중국사회과학원출판사)
- 리우웨이(劉爲), 2005, 「試論攝政王多爾袞의朝鮮政策」, 『中國邊疆史地研究』 15:3
- 마스이 칸이(增井寬也), 1989, 「クルカKūrkaとクヤラKūyala : 清代琿春地方의少數民族」, 『立  
命館文學』 514
- \_\_\_\_\_(增井寬也), 1999, 「明末のフルカ部女直とその集團構造について」, 『立命館文學』 562
- \_\_\_\_\_(增井寬也), 2008, 「清初ニル類別考」, 『立命館文學』 608
- 마쓰우라 시게루(松浦茂), 2006, 『清朝의아ムル政策と少數民族』,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滿文老檔』, 1955-1963, 滿文老檔譯註會, 東洋文庫
- 『滿洲實錄』, 1986, 中華書局(201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실록역주회, 『滿洲  
實錄 譯註』, 소명출판).
- 『明太宗實錄』, 1997, 驪江出版社
- 박원호, 2002,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 方東仁, 1997, 『韓國의 國境劃定研究』, 일조각
- 샤오이산(蕭一山) 編, 2006, 『清代通史』, 華東師範大學出版部
- 아나미 코레히로(阿南惟敬), 1963, 「清初의東海虎爾哈部について」, 『防衛大學校紀要』 7
- \_\_\_\_\_(阿南惟敬), 1970, 「清의太宗의ウスリー江征討について」, 『防衛大學校紀要』 20
- 『龍飛御天歌』, 1973, 한국고전총서간행위원회 편, 『原本韓國古典叢書』 제2권, 大提閣

- 이민환 지음·증제사료강독회 옮김, 2014, 『책중일록』, 서해문집
- 이인영, 1954, 『韓國滿洲關係史의 研究』, 을유문화사
- 장지에(張杰)·장단웨이(張丹青), 2005, 『清代東北邊疆의 滿族』, 遼寧民族出版社
- 장지에(張杰), 2010, 「清前期吉林滿族與朝鮮邊境貿易論述」, 『中國邊疆史地研究』 20:4
- 장춘우(張存武) 지음·김택중 외 옮김, 2000, 『근대한중무역사』, 교문사 (1985, 『清韓宗藩貿易 1637-1894』,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카와치 요시히로(河內良弘), 1992, 『明代女眞史의 研究』, 同朋舎出版
- \_\_\_\_\_, 1992, 「骨看兀狄哈管見」, 『神田信夫先生古稀記念論集：清朝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 \_\_\_\_\_, 2010,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 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崇德二・三年分』, 松香堂書店
- 테라우치 이타로(寺內威太郎), 1985, 「慶源開市と琿春」, 『東方學』 70
- 通文館志, 199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清實錄』, 1986, 中華書局
- 『八旗通志初集』, 1989, 東北師範大學出版社
- 한성주, 2011,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 「咸鏡道會源開市定例」, 1990, 『各司謄錄』 46권, 국사편찬위원회
- 洪良浩, 2004, 『北塞記略』, 고구려연구재단 편, 『조선시대 북방사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 洪儀泳, 1808, 「北關紀事」, 서울대 규장각자료 : 奎4224
- 「琿春縣志」(1927), 1990, 李澍田 主編, 長白叢書 四集, 『琿春史志』, 吉林文史出版社
- 『琿春副都統衙門檔』, 2007,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中國第一歷史檔案館 合編, 廣西師範大學出版社

## ■ Abstract ■

## Hunchun in the History of Chinese-Korean Relations

Kim, Seon-min

This paper explores the history of Hunchun, a remote corner of the Manchurian frontier where the Jurchen-cum-Manchus shared with their Chinese and Korean neighbors. Constant movements, warfare, and trade that took place around Hunchun show that the history of this frontier location cannot be explained in such conventional perspectives as lineal, territory-based, and nation-state centered accounts. During the late fourteenth to early fifteenth centuries, a variety of Jurchen tribal groups, such as Odori, Uriyangkad, and Udike, lived together near Hunchun. It was also the place where the early, ambitious Chosŏn state sought to reach and incorporate into the Korean realm. By the late sixteenth to early seventeenth centuries, the early Manchu leaders, Nurhaci and Hong Taiji, continued to dispatch military forces to the Hunchun region in order to mobilize manpower of tribal groups and strengthen the young Aisin Gurun's banner system. After the military subjugation of Korea, the Qing and Chosŏn relations were resettled on the ground of the tributary hierarchy, a political setting that led to the development of regular commercial exchanges in the form of frontier market in Hunchun. In 1714 when a regiment colonel (xieling) was appointed in Hunchun, the Qing rule in the northeastern corner was further consolidated. By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e Qing government decided to lift the restriction on entry into Manchuria for the purpose of defending its northeastern boundary from increasing threats from Russia, an action that eventually brought a massive wave of Han Chinese immigration in the Hunchun area. At the same period, Chosŏn immigrants also began to cross the Tumen River and settled in this frontier region, and this Korean diaspora led to the for-

mation of Korean Chinese (Chaoxianzu). Hunchun provides an interesting case to demonstrate the ways in which China and Korea have entangled in their frontiers throughout their long history.